



#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정태화 · 장명희 · 박동열 · 김현수 · 김철희 · 최동선 · 허영준\*\*

\* 본고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임.  
\*\* 작성자는 모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속임.





#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 《요 약》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을 위한 7대 과제

- 과제 1.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 과제 2. 직업교육으로의 진로 전환 지원
- 과제 3. 취업 중심으로의 전문계 고교 개편
- 과제 4. 세계적 수준의 전문 직업교육기관 육성
- 과제 5. 대학의 성인 직업교육 훈련 기능 확대
- 과제 6. 전문계고 졸업자에 대한 사회로의 진출 우대
- 과제 7. 현장 지향 교육을 위한 산업체 수요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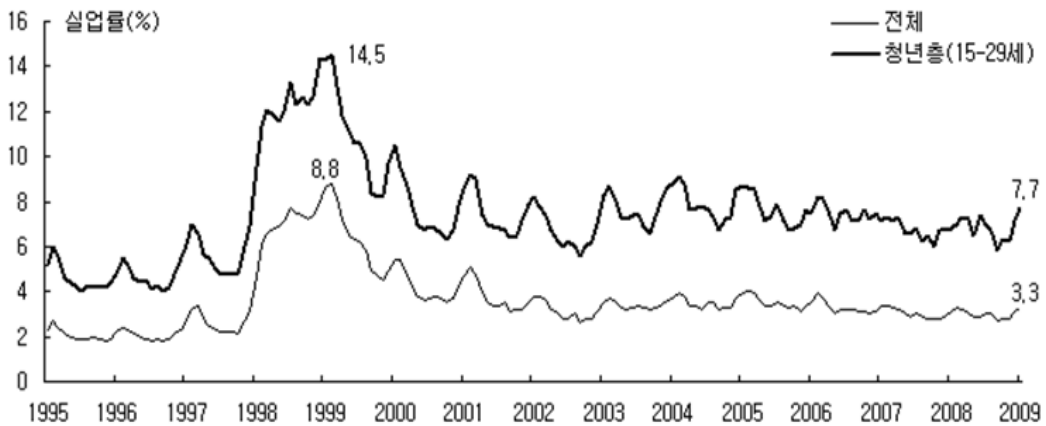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 I. 현황 및 문제점

### 1.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대졸자 과잉 공급에 따른 하향 취업, 높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손실 초래

- 고학력화 속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아 사회적 문제 야기: ‘청년 백수 100만명 시대’ 도래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통계청.

[그림 1] 실업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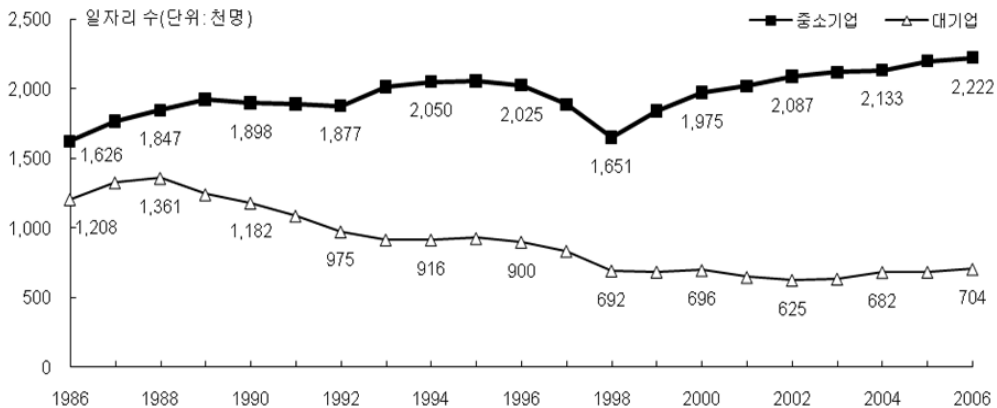
- ‘대학의 빚’에 걸린 대학졸업자의 하향취업 및 역류입학 증가
  - 하향취업: 환경미화원 시험에 고학력자 상당수 응시('09)

(광주 북구 55%, 서울 강서구 37%)

- 역류 입학: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과정 정원(6천명) 대비 전문대학졸 이상 입학자 비율 증가('06년 37.1% → '08년 41.6%)

**중소기업은 구인난 직면 → 사회 전반의 인력수급 체제 재구조화 필요**

- 과도한 대학진학은 눈높이를 높여 '일자리 미스매칭' 유발: 구직난 속의 구인난
  - 중소기업 일자리는 '97년 189만개에서 '06년 220만개로 늘었으나, 인력난 호소(조선일보, '09.01.28)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그림 2]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일자리 규모 변화 추이**

-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 중 기술·기능직 부족률 6.58%로 최고

**<표 1>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

구분	전체	사무 관리직	전문가	기술·기능직	단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 관리직
부족률(%)	2.68	0.72	4.33	6.58	2.98	1.72	2.18

자료: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2008). 중소기업청.

## 2. 학생의 진로경로와 직업교육 현황

###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교육경로

-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입 이전까지의 교육경로는 일반교육 또는 고등교육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함.
  - 중학교 졸업 후 일반고와 전문고로 진학하는 비율: '95년 59.4%(일반고): 38.4%(전문고) → '08년 76.8%: 22.0%
  -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과 취업의 비율: '95년 51.4%(진학): 33.6%(취업) → '08년 83.8%: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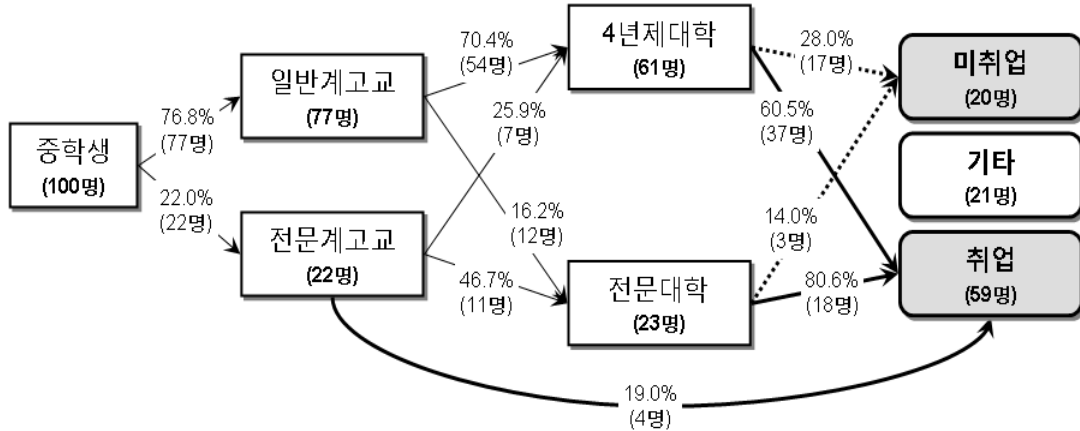
〈표 2〉 학교단계별 졸업 후 진로 현황

구 분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전문대	4년제
졸업자(명)	690,438	423,513	158,408	207,741	282,670
진학(%)	99.7 일반고 76.8 전문고 22.0 기 타 0.9	87.9 전문대 16.2 4년제 70.4 기 타 1.3	72.9 전문대 46.7 4년제 25.9 기 타 0.3	3.9	9.6
취업(%)	0.01	0.8	19.0	80.6	60.5
군입대(%)	-	0.1	0.6	1.4	1.9
무직+미상(%)	0.3	11.3	7.6	14.0	28.0

주: 진로경로별 비율은 전체 졸업자 대비 비율이며, 상급학교 유형별 진학률은 전체 진학자 대비 비율임.

자료: 교육통계연보(2008). 한국교육개발원.

- ➔ 일반교육 및 대학교육 중심의 교육경로로 인하여 고교 단계에서의 노동시장 진입 규모는 제한적임에 비하여 대학 이후의 노동시장 이행에 집중, 높은 실업률 등의 부작용 초래
- 현재의 학교단계별 졸업 후 진로 현황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중졸생 100명 중 전문고 졸업후 취업자는 4명에 불과
- 한편, 중졸생 100명 중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고등교육 졸업후 미취업



주: 1) 학교급간 경로에서의 비율은 해당 단계의 진학 및 취업률임. 예를 들어 중학생→전문계고교의 22.0%는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전문고로 입학한 비율임.

2) 학교급간 경로에서의 괄호(인원수)는 학교급간 진학 및 취업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100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각각의 교육경로를 어느 정도 이동하는지를 가정한 값임. 이 자료는 종단자료가 아닌 '08년 기준의 진학 및 취업률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교육통계연보(2008).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3] 학생의 진로경로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규모

### 3. 주요 문제점

#### 가. 형식적인 진로교육과 진로변경의 어려움

#####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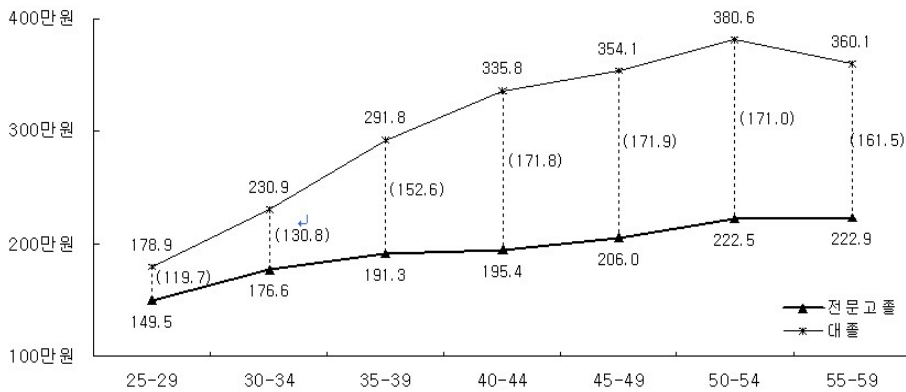
- 직업생활체험 프로그램 참여율(중2~고3년): 3.0~7.0%로 저조(한국청소년패널, '03~'07)
- 중·고교생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지 수준은 직무요건이나 능력 정도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임금수준, 해당 분야 성공인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음(한국고용정보원, 2008).



나. 학력간 임금격차로 인한 직업교육 확대

전문고졸자와 대졸자간의 임금격차 심화

- 전문고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되는 현상
  - 25~29세에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전문고 졸업자의 1.2배 → 40세 이후에는 1.7배로 격차 확대



주: 괄호는 전문고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의미함.  
 자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2007).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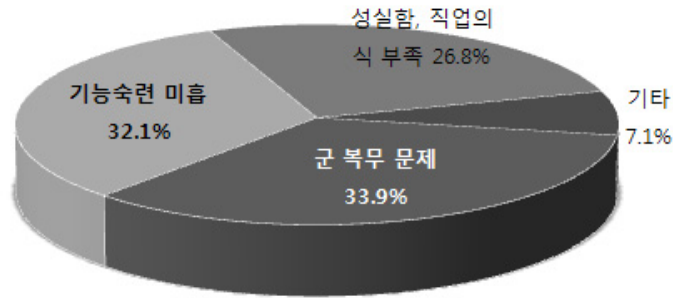
[그림 4] 연령별·학력별 월평균 임금 격차

- 능력이 아닌 학력에 따른 임금구조가 전문고에 입학하려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나 전문고 졸업예정자에게 직업교육 경로가 아닌 일반교육이나 고등교육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고졸 취업시, 평균 월 수입 100만 원 정도(한국고용패널조사, 2007)로 기업 내 낮은 처우(보수, 근무조건 등)와 인식 때문에 기능인의 진로선택보다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도 강함.

다. 기업의 균필자 선호로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 기회 제한

기업의 균필자 선호로 전문고 졸업생 취업 기회 제한

- 기업 인사담당자의 전문고생의 취업 장애요인에 관한 인식: 군복무 문제(33.9%), 기능 수준 미흡(32.1%)의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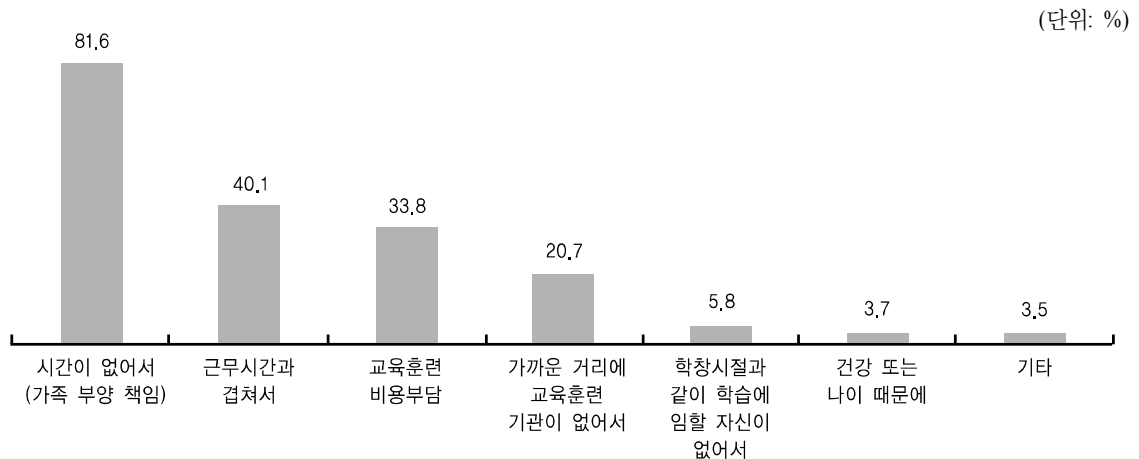
자료: 박동열·윤형한(2007). 『2+5전략』 구현과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기술인력 산·학·군 협력 육성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93.

[그림 5] 전문계 고교생의 취업 장애에 관한 산업체 인식

라. 재직 근로자를 위한 계속 교육기회 부족

계속 교육기회 부족 심화

- 근로자는 시간 부족(81.6%), 높은 교육훈련 비용(33.8%) 등으로 참여 저조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그림 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 요인

**대학 주관의 인생 3모작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부족**

- 고등교육기관은 고졸 입학생 대상의 교육에 관심 치중,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교육에는 무관심
  - 직업능력개발에서의 근로자 범위: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 경제 불황 상황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을 직업능력개발 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유도 부족으로 활성화 미흡
  - 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는 매우 높으나, 실제 프로그램 제공은 매우 저조

**<표 3> 참여 교육훈련기관과 향후 희망 교육훈련기관** (단위: %)

구분	사내 훈련	기업 부설기관	산업교육 전문기관	대학	민간훈련 기관	공공훈련 기관	기타
'05년 훈련받은 기관	24.2	10.0	11.2	3.3	17.1	6.6	27.5
희망 훈련기관	11.6	8.2	18.2	18.6	15.3	21.1	7.1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 일부 부처는 대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은 미흡
  - 노동부의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 43개 대학(폴리텍대학 포함), 재직근로자 중심
    - ▶▶ 70개 기관 450억 원('06년) → 69개 기관 556.9억 원('07년) → 80개 기관 774.9억 원 ('08년)
    -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에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 모형 신규 도입('08년)
  - 교과부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7개 대학('08년 7억 원 지원), 지역 주민 대상

## Ⅱ. 비 전



### Ⅲ. 제 안

[3대 제안 - 7대 과제]

**직업교육으로의  
진로 지원확대**

1.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2. 직업교육으로의 진로 전환 지원

**취업에 강한 매력적인  
직업교육운영**

3. 취업 중심으로의 전문계 고교 개편
4. 세계적 수준의 전문 직업교육기관 육성
5. 대학의 평생취업 지원기능 강화

**사회적 여건개선을  
위한 인프라 강화**

6. 전문고 졸업자에 대한 사회로의 진출 우대
7. 현장지향 교육을 위한 산업체 수요 반영

## 1. 직업교육으로의 진로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과제 1.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우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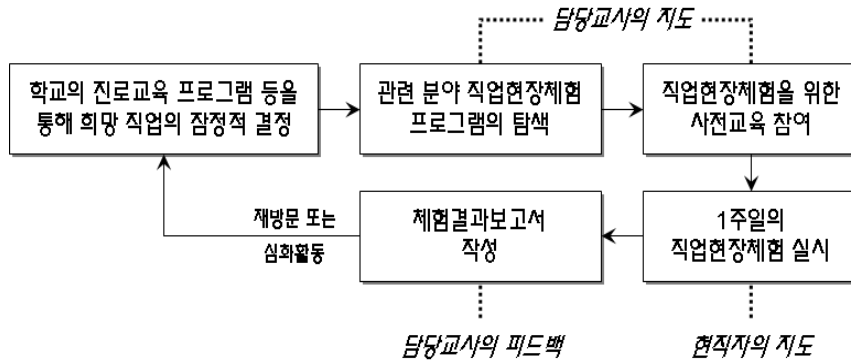
- ▶ 서울여상은 주기적인 학부모·학생 대상의 진로교육 강화로 취업희망자 증가
  - 취업희망자('07년 입학생): 8%(1학년)→70%(2학년)→70%(3학년)
  - '08년도에도 취업률 64% 달성(전국 상업계 평균 취업률 25.8%)

#### 초·중·고교생의 직업체험 강화

- 1단계: 쌍방향 간접체험 시스템(인터넷, 전문가, IPTV 등) 운영
- 2단계: 학생이 직접 산업체를 방문하는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 프로그램 실시
  - 단기적으로 직종별 또는 업종별 현직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직업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 ▶▶ 주요 직업군 또는 산업군별 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직업체험 지원단 육성
    -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계 고교 및 직업훈련기관의 실험·실습기자재를 활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 ▶▶ IP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쌍방향 직업체험 및 멘토링 시스템으로 발전
  - 중장기적으로 학생이 직접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직자의 지도하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 프로그램을 청소년 진로교육의 핵심 수단으로 강화

#### ※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이란?

- 학습자가 1일 이상 동안 특정 회사 종사자를 따라다니면서 특정한 직업이나 산업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진로탐색 활동
- 미국의 Job Shadowing을 주도하는 Junior Achievement Worldwide는 산업현장 방문에서 종료까지 현장조정자(site coordinator) 및 학교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을 가이드 라인으로 개발·제공



[그림 7]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 프로그램 운영 절차

- SC, 직종별 협회 및 단체, 개별 기업 등의 사업체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 주체 육성
  - ▶ 개발된 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함과 동시에, 단위 학교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 동시에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2011년 개관 예정) 및 지역 고용지원센터 적극 활용

### ‘1社 1校 산학협력 체결’

- 중학교: 진로교육 지원, 전문교: 취업지원을 위한 멘토링
  - SC 주도의 ‘1社 1校 산학협력 체결’ 추진: 참여 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검토
    - ▶ 상상사 1,799여개 vs. 전문계 고교 697개교, 전문대학 147개교(\*08.12 현재)

### 초등학교에서 고교까지 직업 친화적인 교육과정 구축

- 물건 만들기, 시장조사 분석 등의 프로젝트형 학습을 학교 재량 교과로 운영
  - 일상생활 속의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의 직업교육과정 도입
    - ▶ 예) 아이디어→기획→스케치→설문·분석→디자인→제품구현→특허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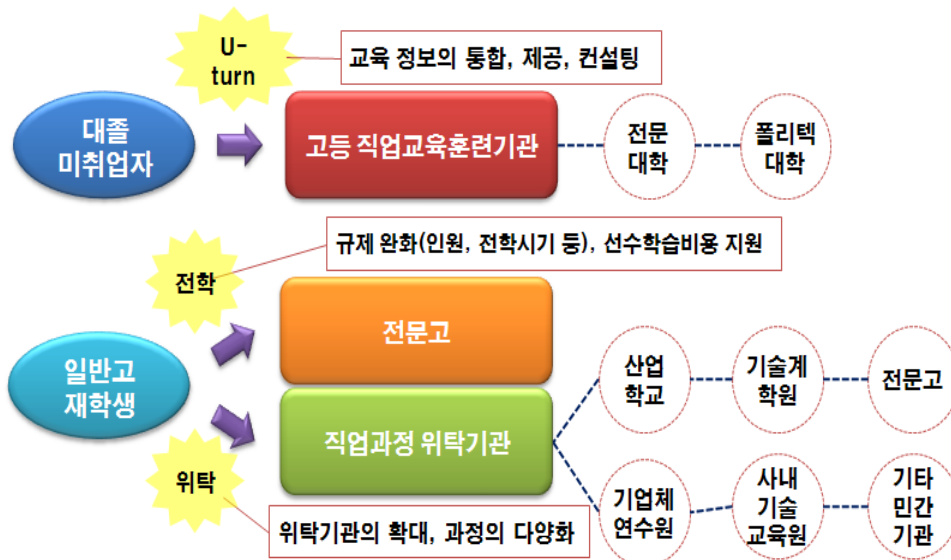
▶ 일본의 모노즈쿠리(물건 만들기) 교육: 초등학교(직접 만들기)→중학교(공장 체험, 실험)→고교(인턴십, 기술교육)→대학(기업체 조사 및 산학협력)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 진로교육 중심의 경제교육 강화
- 실과(초), 기술·가정(중·고) 등 정규 교과목을 대체하는 ‘자율 교과’로 인정

과제 2. 직업교육으로의 진로 전환 지원



- ▶ 아현산업정보학교(직업과정 위탁기관): “영어, 수학 덮고 내 꿈 찾았습니다.”
  - 실용음악과 경쟁률 3:1(휘성, 버블시스터즈, 박효신 등 유명 가수 배출)
  - 분야: 산업, 디자인, 서비스, 생활예술 계열



[그림 8] 직업교육으로의 진로 전환 지원 확대 방안



### 일반고 학생이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2학년 1학기까지로 제한된 전학시기 등 규제를 완화: 전학에 필요한 전문교과 보충학습은 교육청 등에서 지원
- 직업과정 위탁기관 확대: 시도별 1~2개의 우수 위탁기관 지정·운영
-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다양한 민간기관(기업체 연수원, 사내기술교육원 등)까지 확대
- 장기 위탁과정 운영
  - 기술계 학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기업체 연수원, 컨설팅 업체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경쟁 체제 운영
  - 일반계 고교의 무직 비율(44,417명, 10.5%)보다 전문계 고교의 무직 비율(9,804명, 6.2%)이 낮아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교육 강화 필요(교육통계연보, 2008)
- 민간이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시 정규 수업으로 인정
  - 방학 및 방과후 시간에 민간이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결과의 인정
    - ▶▶ 교육청이 평가인증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 정규학습과정 이수로 인정
    - ▶▶ 일본 문부과학성의 기능심사인정제도: 학교 밖에서 수행한 학습(교육훈련) 평가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운영 강화

대졸 미취업자의 직업교육기관 재입학 지원: 정보제공, 컨설팅 등

## 2. 취업에 강한 매력적인 직업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과제 3. 취업 중심으로의 전문계 고교 개편

###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 등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탈규제화 추진: 무학년제, 학점제, 조기졸업제 등 도입

### ‘산업체 협약 학교’ 도입

- 공립 전문계고의 운영을 산업체 등에 전면 위탁
  - 예: 화장품회사, 자동차회사 등
  - 운영 예산은 산업체(10%)와 교육청(90%)이 분담

### 유망 분야로의 학과 개편

- 녹색기술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중심으로 학과 개편 지원: 로봇산업장비관리과 등

## 과제 4. 세계적 수준의 전문 직업교육기관 육성

### 우수 사례

- ▶ 영진전문대학: 하이닉스반도체와 주문식 협약을 통해 국제수준 반도체 인력 양성, 일·중·미 등에 약 300명 취업 협약('08년)
- ▶ 서울관광고: 말레이시아 리조트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 종료 후 취업 연계
  - '08년 프로그램 참여 10명 중 8명이 해외에서 인턴십 수료 후 취업 예정

### ‘해외취업중점 전문대학’(GHC: Global Hub College) 육성 사업

- 외국 소재 한국 기업체와의 주문식 교육을 통해 필요 인력 양성·공급 가능분야
  - ①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 기업의 판매 및 정비업 종사 인력 공급
    - ▶▶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 연간 22만대(한국무역협회, '08.4.)
  - ② 외국소재 한국 식당의 조리 전문가 공급 →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

- 외국인 유학생 전문대학 입학 확대 → 귀국 후 한국 기업체 근무와의 연계
  - 일본 아시아태평양대학(APU) 사례: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입학시켜, 일부 학생은 일본에서 취업하고 일부 학생은 졸업 후 해당 국가로 귀국하도록 유도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목적으로 운영
-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및 동남아 국가에 직업교육 수출 촉진
  - 카자흐스탄 국가자격제도 컨설팅 사업 수행(한국직업능력개발원, '06-'08년)

**‘명문 직업아카데미’ 인증 및 이수결과 학력 인정**

※ **국내 명문 직업학교**

- SAD(삼성디자인학원), 초록뚝 sa 액팅 스쿨(작가·연기자 양성), SM 아카데미(가수·연기자·작곡가 양성), BIT 학원(IT전문가 양성)

※ **해외 명문 직업학교 사례**

- 프랑스: 루앙 국립제과제빵학교, 카파 포르마시옹(소믈리에 양성)
- 미 국: 요리학교(CIA), 필름 아카데미, 시카고 바이올린 제작학교
- 기타 스위스 호텔 매니지먼트 스쿨, 네덜란드 그린 비즈니스 스쿨

- 요리, 예술, 패션·디자인, IT분야 기술계 학원 등 우수기관 집중 육성(분야별 1-2개)
- 명문 직업아카데미의 주체, 교육과정 및 운영방식은 100% 기관 자율로 결정
- 정부는 최소한의 이행협약을 통해 질 관리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결과를 학력으로 인정

## 과제 5. 대학의 성인 직업교육 훈련 기능 확대

### 우수 사례

- ▶ 숙명여대, 울산대('09년): 퇴직자 쏟아지는데 대학이 뒷짐만 질 수 없어, 재직 근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숙명여대: 미취업자를 위해 '학사 후 과정' 개설
  - 울산대: 실직자의 재취업 능력개발을 위해 39개 강좌 개방 '08년 프로그램 참여 10명 중 8명이 해외에서 인턴십 수료 후 취업 예정

### 취업자 전형 등을 통한 대학의 계속교육(Reschooling) 기능 확대

- '근로경험 평가·인정제' 도입을 통한 전문대학에 1년제 집중 학위 과정 개설
  - 근로경험을 학점 또는 자격과 연계하는 '개인별 근로경험 평가·인정체제'를 도입하여 계속교육에 대한 시간적·재정적 부담 경감
    - ▶ 호주: 산업체가 ANTA(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의 등록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으면, 자체적으로 내·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핵심역량을 다양한 방식(증거 포트폴리오, 인터뷰, 관찰)으로 평가하고 자격 수여
    - ▶ 1년 3학기제, 1년 집중이수제 등 학제운영의 자율화
- 군·대학 연계를 통한 군 인적자원 역량 강화

### 대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

- 재직자 전직훈련, 실업자 재취업 훈련 등 적극 지원
  - 노동부 재정지원시 평가기준 마련
  - 신성장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프로그램 중점 운영
  - 성인의 직업능력개발(재취업, 직업전환)의 장애요인 해소 및 취업, 전직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병행
- 재정지원 대상 기관의 연차별 성과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 유지

- 노동부 주관으로 우수대학(BETU: Best Employees Training University) 선정후 전국적으로 보급
  - 성과평가 체제의 확립 및 차등지원 강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 훈련기관·과정은 우대하고, 부실훈련기관은 시장에서 퇴출
  - 대학의 프로그램 개설·운영 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 추진
- 행정 요건 완화: 시설·설비 기준, 예산 집행 규정 등

### 3.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과제 6. 전문계고 졸업자에 대한 사회로의 진출 우대

#### 능력위주 인사관리 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체의 능력 기반 채용과 승진제도 도입 유도
- 우수 산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전문계고 및 전문대졸자의 기능분야 국가공무원 추천채용제 확대

- 전문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
-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능인을 존중하는 문화의 조성·확산
- 경기도교육청 사례
  - 특별채용 실시('06년) → 7명 임용('07년) → 경기도교육청훈령 제213호 제정('08.11.7.) → 시행('09.7.1.)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17호): 제26조의 4 개정을 통한 기능인재(전문계 고교, 전문대학)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

###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신증 재검토

- '12년 폐지 예정인 동 제도의 유지 검토 필요

## 과제 7. 현장 지향 교육을 위한 산업체 수요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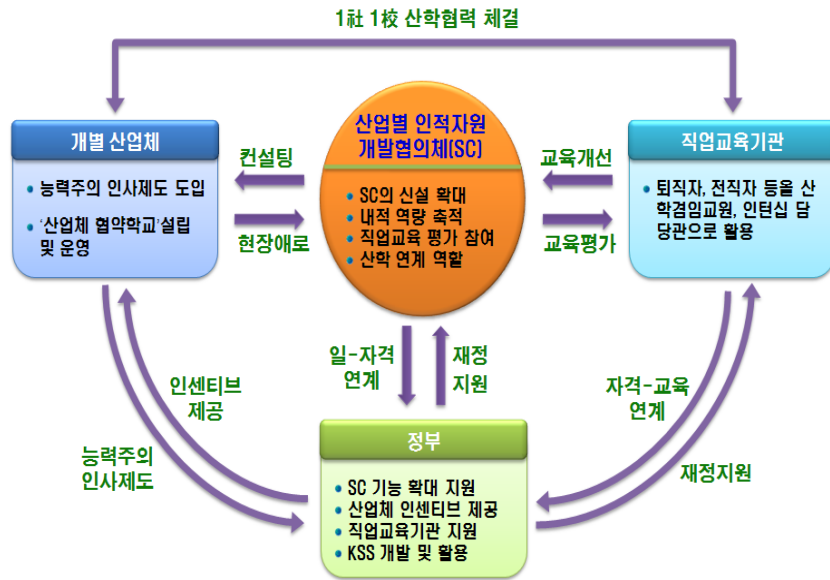
### 산업체의 요구가 반영된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운영 활성화

#### ※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n Skill Standards)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Sector Council) 지원 확대

- 협의체 신설 확대: 신성장 선도산업, 녹색성장산업 및 서비스 산업 부문
  - 현행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09년 현재):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조선, 철강, e-biz 등 11개 분야에 설치
- SC의 전문 역량 축적 및 안정적 예산 지원
  -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제공: 민간 전문기관이 담당, 동 기관은 SC의 역할 수행 평가 및 자문도 수행
    - ▶ 「산업발전법」(제12조) 조항 개정을 통해 SC의 역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기관 설립



[그림 9] 직업교육훈련에서 산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 지역 직업 교육훈련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제거

- 노동부(노동청), 지경부(중소기업청), 교과부(교육청) 산하 지역행정 조직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및 각종 협의회 일원화
  - 평생교육법, 산업발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의 관련 조항 개정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인적자원개발기본법), 지역평생교육협의회(평생교육법), 지방고용심의회(고용정책기본법) 등의 유사 중복 기구 일원화
- 예산지원과 권한 확대를 통해 지자체장이 해당지역 소재 평생교육기관, 지방 노동사무소(고용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학간의 협력체제 구축 지원
  -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정책과 연계하여 13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RHRD 센터가 지역의 허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참고문헌

- 고재성 외(2008). **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 박동열·윤형한(2007). 「2+5전략」 구현과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기술인력 산·학·군 협력 육성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 통계청(1985-2006).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http://www.kosis.kr/>.
- \_\_\_\_\_(1995-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kosis.kr/>.
- 한국고용정보원(2007).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원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원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3-2007). **한국청소년패널 원자료**.
-